



중국 포장교육의 소개

이번 호에서는 중국의 포장 교육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포장 교육은 우리 나라와는 상상이 안될 정도로 정부기관이나 관련기관에서 중요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4년제 대학에 포장학과도 없는 형편이지만 중국은 명문인 길림대학교 내에 단과대학 규모인 포장대학이 있고 이 안에 크게 포장공학과와 포장디자인학과를 중심으로 하는 각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더욱이 중국에서 포장교육은 아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어 중국 교육부에서 직접 길림대학교 포장대학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 내에 이미 석사과정까지 개설하고 있다.

본인은 이 대학을 자주 방문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이 대학에서 완충포장에 대해서 중국어로 2시간에 걸쳐서 특강을 했는데, 교수들과 3, 4학년 학생, 대학원 학생들이 참석하여 좋은 시간이 됐다. 앞으로 이 대학 대학원생의 논문을 공동으로 지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앞으로 계속적인 유대관계가 유지 될 전망이다.

이번 호에 이어서 다음 호까지 중국의 포장교육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983년 12월 당시 중국의 만리부 총리는 “과학기술로 업종을 새롭게 진흥하자”는 구호 아래 빠른 시일 내에 중국포장산업의 낙후성을 개선하고 포장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1984년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포장기술협회 교육위원회, 중국포장총공사 기술 훈련부와 교육부 등 유관기관이 연합하여 북경에서 처음으로 “전국포장교육좌담회”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는 국무원 교육위원회의 교육국, 중국포장협회 전문분과위원회, 성정부 교육국, 성 단위의 포장협회, 포장공사와 이미 부분적으로 포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으로부터 48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이 회의에서 중국포장협회 상무이사인 이명 씨와 중국포장협회 포장교육위원회 주임 고서우쑤(高首善) 씨는 1983년 12월 국무원 만리부 총리가 중국 포장협회 제 2차 전국 대표대회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중국의 포장기술이 낙후된 것



김 세 능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



은 우선 인재가 없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기술인재와 관리인재를 빨리 배양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각 행정 중심 기관에서는 이에 따른 포장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총리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면서 30만 이상의 대도시중에서 특별히 연해도시와 경공업, 식품업이 발달한 도시에서는 모두 포장분야의 중등기술학교(우리나라 기술고등학교)와 직업고등학교(우리나라 대학 및 전문대학)를 설치해서 인재를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대도시에서는 반드시 몇 개의 기존 고등학교를 포장기술학교로 바꾸어서 정기적으로 인재를 배양해야 한다 주장하였다. 이는 포장기술 인재배양을 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이 학교의 설치하는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설치해나가야 한다고 밝힌 것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중국포장협회 포장교육위원회 비서장이며 중국포장총공사 기술훈련부 책임자인 장루이(姜銳)는 전국포장산업의 과학기술현황, 수요 및 상황조사와 중국포장협회, 중국포장총공사가 중국의 포장교육에 관한 계획을 구상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회의에 참가한 국가교육위원대표들도 중국의 포장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 회의를 조직한 대표들은 어떻게 중국의 포장교육을 발전시킬지에 대해 사흘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중국의 포장교육에 관한 계획을 구상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가 끝난 후 1984년 6월 28일, 국가경제위원회와 교육부가 연합하여 전국에 걸쳐 "포장교육을 발전시킬 공고문(경포[1984]495호)"를 발표하였고 "전국포장교육좌담회회의기록"도 이 공고문에 같이 실렸다.

공고문 중에는 중국의 포장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긴박한 문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때문에 전국 유관기관에 "전국포장교육좌담회회의기록"중에 실린 8개 건의를 참조할 것을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만리부총리의 지시를 철저히 집행할 것과 포장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건의했다. 중국포장교육의 중요성은 바로 이 회의의 결과로 중국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과 전국 각 산업업종에 파급되었다. 그리하여 1985년부터 1986년까지 짧은 2년 동안 중국의 포장교육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였다.

우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포장공학"을 중국의 대학교육시범학과로 결정하였으며 중국 내 4년제 일류대학교인 길림대학, 서북경공업대학, 무석경공업대학, 섬서기계학원과 천진상학원 등에 처음으로 포장공학과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중국 대학교육전공목록에서 포장공학이 처음으로 전공목록에 올라가게 된 것이다. 동시에 통계에 따르면 2~3년이란 짧은 기간동안에 전국에 이미 40여개의 대학교와 30여개의 고등기술학교에서 포장공학과를 설치했거나 포장과목을 강의하게 되었다.

1984년말,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식으로 규모가 포장학과 단위가 아닌 일반대학(College)의 규모인 "중국포장공학 대학(College)"을 건립할 것을 비준해 주었다. 한국은 아직도 4년제 대학 내 포장공학과도 없는데 포장의 특성을 살려 대학교 내 일반대학규모로 대학을 설립하는 중국을 보며 중국이 포장교

육의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부터 중국에서는 각 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현대 포장과학기술인재를 대량으로 배양해 나갈 수 있었다.

두번 좌담회의의 결과로 중국교육위원회 교재부와 전국 각 방면의 협조 하에 1984년 8월말에 “전국 포장교재편찬심사위원회성립대회와 제1차 편찬심사사업회의”가 섬서성 함양시에서 소집되었다. 편찬위원회의의 위원은 37명으로 국무원유관부문, 성과 시의 교육청, 또한 중요한 포장기업에서 추천한 대학교의 교수들로 구성되었다. 중국포장협회 교육위원회 비서장이며 중국포장총공사 기술훈련 책임자인 장루이(姜銳)는 이 위원회의의 주임으로 당선되었으며 위원회의의 사무실은 서북경공업학원에 설치되었다. 한 주일간의 회의기간에 위원들은 진지한 토론과 협상을 거쳐 대학 포장공학과 교육계획, 계획강령, 교재편집계획, 편집내용을 작성하였으며 포장공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13개 전공기술과목의 편집대강, 편집진도계획, 편집분과 완공시기를 작성하였다.

위원회의의 37명 회원 전부는 모두 각자의 전문분야에 따라 한 과목의 주필과 심사를 책임졌으며 일부 과목의 몇몇 장의 편집도 책임졌다. 이 교재는 계획대로 1987년말에 완성되어 출판발행을 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이 교재의 편집에 참가한 인수는 180명이 넘었다. 특별히 이 교재의 편집후기 단계에 이르러 원고를 호남대학출판사에 넘길 즈음에 주주대학교 출판사가 적극 협조해 주었다. 이 교재는 1987년 국가위원회의의 주최 하에 북경에서 열린 “전국대학교 교재사업 좌담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전국포장교과서 편찬심사 위원회”를 국가교육위원회 대학교재 편집조직으로 발전시켰다. 이 교재의 출판은 중국의 대학포장교육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였으며 중국의 대학포장 교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전국포장교육좌담회가 그 이후에 중국 포장교육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또한 중국 포장교육의 지난 14년동안 발전상을 돌이켜보면 1984년에 열린 전국포장교육좌담회의는 중국의 포장교육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포장 교육현황을 보면서 포장공학을 제대로 전공한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써 조국의 포장교육 수준을 볼 때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21세기를 준비하는 대국으로써 벌써 새로 오는 세기에 산업으로써의 포장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00년 대계인 포장 교육에 학사학위 뿐 아니라 석사과정까지 개설하고 있는 중국정부 교육부와 포장산업체관련 기술자, 관련학자들의 선견지명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아직도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학사학위를 주는 포장학과가 있는 4년제 대학 하나도 없으니 심히 안타까운 마음이다.

한국에 있을 때 4년제 대학에 포장학과를 설립해 보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뛰어서 거의 될 것 같던 4년제 대학 포장학과 설립이 무산되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도 조속히 4년제 대학에 포장학과가 설립되고 포장전문인력을 배출하여 한국이 21세기 태평양시대에 주역의 자리를 굳히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